

외국인 유학생들의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과의 관계 분석*

최진숙
(영산대)

Choi, Jin-Sook. (2016). An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glish skills and Korean skills among the international student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4(4), 219-234. This study focuses on investigating whether international students' English skills are related to their Korean skills. For this study, 82 international students' English skills and Korean skills were evaluated through the scores of two subjects: English Writing and Korean Vocabulary & Grammar. To raise the level of the validity and reliability of the study, Language Attitude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another 102 stude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for English & Korean score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English skills seem to be related to their Korean skills; the participants with high level of English skills showed a high level of Korean skills, whereas lower achievers in English skills acquired a low level of Korean skills. However, the result of the language attitude questionnaires indicated that the two skills were not related to each other because the participants who had a high level of their perceived English skills demonstrated less favorable attitudes towards Korean than those who had a low level of their perceived English skills. In other words, the participants who had lower subjective English skill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s Korean. On the basis of the results, it is difficult to identify whether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kills. However, in accordance with previous studies, the reason for an unclea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kills seems due to their low level of mother tongue skills. For a clearer relationship, further study for the participants with a high level of mother tongue skills is required.

주제어(Key Words): English skills, Korean skills, Mother tongue, Language attitudes, International students

* 이 연구는 2016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I. 연구배경과 목적

지난 2000년 이후 꾸준히 외국인 유학생들이 늘어나다가 2012년을 정점으로 유학생 수는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교육부통계자료, 2016). 대학 입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한국의 대학들에게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중요한 교육 자원이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한국어센터를 거쳐 학부로 진학하여 전공을 선택하게 되거나, 본국에서 일정 수준의 한국어를 습득한 후 2+2 복수학위 및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3학년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한국어가 부족한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수업언어(medium of instruction)로 하여 전공과목을 가르치다보니 교수자도 학습자도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부족으로 전공 공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나아가 대부분 학과의 교과과정에는 영어과목이 필수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영어수업이 교육적으로 효율적인지 교육과정을 설계할 때 의문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즉,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다른 외국어인 영어까지 습득하게 하는 것은 제한된 시간 안에서 한국어 능력 습득 시간을 줄이고 유학생들에게 부담감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영어능력이 우수하다면 한국어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어 유학을 와서 두 외국어를 동시에 습득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조하기도 한다.

본 논문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영어능력이 한국어 능력과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영어 및 한국어 점수 분석과 설문지 분석을 통해 그 상관관계를 조명해보려고 한다. 즉, 한국으로 유학을 올 때 가지고 있던(혹은 한국에 와서 습득한) 영어능력이 한국어 능력 습득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그들이 습득한 영어능력은 한국어 습득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지 밝혀내고자 한다. 만약 두 언어가 상관관계가 있다면 즉,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한국어도 잘한다면, 두 언어를 배우는 것은 서로 상승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 유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한국어 습득 능력이 서로 전혀 관계가 없다면, 수업의 수월성 및 효율성을 위해 굳이 두 개의 외국어를 동시에 습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즉, 교과과정을 설계할 때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외에, 다른 외국어를 가르침으로써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지양해 보려고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비효율적인지 밝혀내어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과과정을 설계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자는 믿고 있다.

II.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의 정의

1. 점수 분석에서의 두 능력

본 논문의 점수 분석에서 ‘영어능력’이란 Y대학교 외국인학생들이 전공 선택으로 수강하고 있는 ‘비즈니스 영작문’ 과목의 성적 결과를 의미한다. 이 과목의 평가내용에는 전반적인 ‘영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들, 즉,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이 포함된다. 문법 및 독해 내용 등이 담겨져 있는 교재를 듣고 이해하는 활동(듣기, 읽기)과 교수자의 한국어 및 영어로 강의하는 설명을 통해 이해한 내용을 영어로 작문하여 표현하는 활동(쓰기, 말하기)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활동과정에서 나타난 영어능력들을 시험 및 과제, 그리고 그룹 및 개인 활동 등을 바탕으로 교수자가 입체적으로 평가한 것을 본 논문에서는 ‘영어능력’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 교과목 수업내용을 기준으로 한 평가에서 높은 결과를 보여준 학생을 영어능력이 높다고 정의하고 있고, 반대로 낮은 결과를 보여준 학생을 영어능력이 낮다고 본 논문에서는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국어능력’이란 Y대학교의 ‘한국어 문법과 어휘’란 과목에서 보여준 역시 네 가지 언어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평가한 것을 의미한다. 즉, 이 과목은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와 이해한 것을 글쓰기와 토론을 통해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수업목표인데, 이 과정에서 한국어 표현활동들(듣기, 말하기)과 읽기와 쓰기로 평가된다. 이 과목 또한 두 번의 시험과 출석, 수업활동을 포함한 전체 포괄적인 성적 결과를 의미하며, ‘한국어문법과 어휘’의 성적이 좋을수록 ‘국어능력’이 뛰어나다고 정의하고 있다.

2. 설문지 분석에서의 두 능력

본 연구는 위의 점수 분석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 분석이 추가로 이루어지는데, 설문지 분석에서의 ‘영어능력’이란 참여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영어능력’, 즉 ‘주관적인 영어능력(subjective English skills)’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영어능력이 높다고 생각하면 본 논문은 영어능력이 높은 것으로 가정하고, 낮다고 생각하면 영어능력이 낮다고 정의한다.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능력 척도는 타당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일반적인 설문지조사에 쓰이는 질문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Fasold, 1993). 설문지의 이러한 주관적인 평가는 주로 본인의 느낌이나 인상(impression marking)으로 이루어지는데, 복잡하고 긴 시간이 필요한 평가에 비해 정교하지는 않지만 이미 내제되어 있는 가이드(guide)에 따라 빨리 평가해야 할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Underhill, 1987). 평가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자들 스스로

의 측정이 참여자 내면(internal state)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객관성과 타당성 있는 대답으로 유도해야 하며, 그 대답들을 정량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Choi, 2002). 나아가 내면을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문지 연구로만 결론내리지 않고, 설문지조사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다른 연구와 병행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바로 위의 점수 분석조사이다.

‘한국어 능력’은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한국어 능력이 높고, 태도가 좋지 않으면 한국어 능력이 낮은 것으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사회언어학에서는 특정한 언어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를 여러 연구에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여 왔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결과들을 보면(최진숙, 2002, 2008; Gardner, 1985; Knuber & Brandsma, 1993; Tremblay, Goldberg, & Gardner, 1995),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언어태도는 그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언어학습성취도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먼저 학생들의 히브리어에 대한 언어태도와 언어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Tremblay, Goldberg, & Gardner(1995)의 연구에 따르면, 히브리어에 대한 좋은 태도를 보인 학생들의 언어성취도를 조사한 결과, 히브리어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학생들보다 그 언어에 대한 능력이 월등히 높았다. 언어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은 그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을 뿐 아니라, 그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크게 높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연구자들은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와 그 언어의 능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Knuber & Brandsma, 1993)에서도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와 그 언어 능력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지지해주고 있다. Knuber와 Brandsma(1993)는 네덜란드의 초등학생 212명을 대상으로 독일어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언어태도조사를 한 후, 학습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일정한 학습기간이 지나 독일어학습 성취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습 시작 시 독일어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학생들은 그 언어의 학습 성취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언어태도가 좋지 못했던 학생들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언어태도와 언어능력과의 관계는 최진숙(2002)에 의해서도 이루어졌다. 영어수업을 듣는 137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언어태도설문지조사를 한 결과,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는 영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 아니라, 영어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낮았고 배우고 싶은 의욕도 현저히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최진숙(2008, p.3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특정한 언어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지면 그 언어능력 또한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은 그 언어의 편견이나 불안함을 줄여주어 그 언어를 사용하는 그룹의 문화를 잘 받아들일 뿐 아니라, 학습을 할 때도 즐거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효과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이나 관심은 이미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그 언어와의 경험에 의해 익숙해져 있으면 생기는 심리적 상태이다. 따라서 특정한 언어에 대해 좋은 태도를 보이는 학생은 그 언어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 경험을 가지고 있기

쉽기 때문에 이미 그 언어에 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특정언어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그 언어에 대한 학업성취도도 높고 그 언어에 대한 능력이 높다고 정의하고 있고, 반대로 태도가 좋지 않으면 언어능력이 낮은 것으로 정의한다.

언어태도를 측정할 때는 주로 인식적인 측면이 기준이 된다. 즉, 특정한 언어가 유용한지, 미래에 필요한지, 가치가 있는지 등 도구적 태도(*instrumental attitudes*)라고 볼 수 있다. 학습자가 학습하고 있는 언어가 사회에서 가치 있고 유용하다는 인식을 가지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도구적 태도와 함께 감정적인 영역이 측정된다. 감정적인 영역이란, 특정한 언어에 대해 좋은 느낌으로 호감을 가지거나 그 언어를 학습하기 좋아하거나, 나아가 그 언어를 쓰는 그룹과 그룹 화자들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나 느낌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구적 및 감정적 영역은 일반적으로 사회언어학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태도들이라 할 수 있고(Fasold, 1984), 본 연구 또한 사회언어학 관련 선행연구들(최진숙, 2005, 2008; Choi, 2002; Fasold, 1984; Gardner, 1985)에서 사용된 언어태도 영역을 측정한다.

III. 언어능력간의 상관관계

일반적으로 모국어 능력이 뛰어나면 외국어 혹은 제 2언어 습득이 빠르다는 연구결과는 꾸준히 발표되어 왔다. 먼저 한국 대학생 248명을 대상으로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최진숙(2008)은, 모국어능력이 뛰어나면 외국어 습득능력도 뛰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어에 뛰어난 학생일수록 높은 영어능력을 보였으며, 모국어, 즉 한국어 능력이 낮은 학생일수록 영어능력도 낮았다. 나아가 언어태도설문지에서도 모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영어에 대해 보다 호감적인 태도를 보여 감정적 영역 뿐 아니라, 영어의 가치 및 필요성을 묻는 도구적 영역에서도 높은 점수를 보여 한국어 능력과 영어능력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해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 Cummins와 Swain(1986)의 연구결과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과 영어능력을 연결해 분석해본 결과, 영어습득 및 영어능력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연구대상자들의 모국어능력이었다. 즉, 모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영어습득능력도 높았고 영어에 대한 태도도 아주 좋았다. 나아가 안정효(2007, p.123)는 “영어뿐 아니라 모든 외국어는 어차피 모국어를 바탕으로 삼아서 배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최지현(2013)은 최근 모국어 능력과 영어습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모국어와 외국어는 서로 방해하고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나 모국어 인식이 외국어 습득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Choi, 2003)도 있다. 즉, 외국어 학습자는 모국어를 언어정체성(*language identity*)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영어 학습이 언어정체성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한 학습자일수록 영어능력이 낮게 측정되었다. 또 다른 연구결과(차호순, 1994)에서도 외국어 습득에서 모국어 방해 현상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이는 모국어 구조에 외국어 구조를 대입시키려는 강한 습성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이처럼 외국어 습득에 모국어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습득능력에 모국어능력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예, Baker, 1993; 배혜경, 2006, 최진숙, 2008; 김주영 & 신승훈, 2014).

이중다중언어교육을 주장한 박영순(1997)에 의하면, 두뇌는 모국어와 외국어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달라, 외국어 몇 개든 모국어 부분에 입력되면 모국어로 전환하여 외국어 습득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한다. 이것이 다중지능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위의 Cummins와 Swain(1986)에 의하면 한 외국어에 능숙하면 다른 외국어도 습득이 빠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연구자들에 따르면, 다중언어 구사자는 단일 언어 구사자 보다 새로운 언어를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외국어를 배우는 것은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한다. Baker(1993)의 ‘Common Underlying Proficiency Model(수면 밑의 공통 능숙도 모델)’ 이론에 의하면, 위와 같이 모국어가 뇌의 중앙처리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어 결국 모국어 능력에 따라 외국어습득 능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언어습득에는 모국어 매개체이니 외국어도 모국어에 따라 달라지고, 모국어가 충분히 잘되어 있으면, 두 외국어(영어 및 한국어)도 동시에 습득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여러 외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경우, 외국어능력이 모국어 능력에만 영향을 받는 것일까. 두 외국어의 능력은 기본적으로 모국어능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언어 환경도 중요하다는 연구도 발표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정에서 자란 어린이들의 이중 언어습득과정을 보면, 어린이는 두 부모의 언어를 모두 사용가능하지만, 언어 환경에 따라 언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보이기도 한다(권경숙, 2015). 따라서 부모의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 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언어에 대한 환경, 즉, 노출도 등에 따라 두 언어 중 한 언어가 더 발달한다는 것이다. 언어 환경에 따라 특정한 언어가 더 발달한다는 김명숙(2009)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에 살 때는 한국어만 사용, 호주에 살 때는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습득한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 언어 환경에 따라 언어가 발달하고 퇴보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외국어 습득 능력은 기본적으로 모국어 기반이 되어 움직이지만, 언어 환경(노출도) 또한 중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Choi(2002)의 연구 또한 외국어능력은 그 목표언어로의 적극적인 접촉 및 노출도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언어 환경에 맞추어 언어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들 경우, 모국어만 잘 형성되어 있다면, 영어 및 한국어로의 노출을 둘 다 높여 줄 경우, 영어와 한국어의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즉, 유학생들의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과의 관계는 그들의 모국어 능력과

외국어 습득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를 역으로 제시하면, 모국어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아닐 경우, 하나의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의 실험결과도 영어능력과 한국어능력이 낮게 나타날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 두 언어의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인 영어능력과 한국어능력과의 관계를 아래의 실험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며, 나아가 본 논문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학습 상황에서의 영어학습의 효율성을 제시하여 현재 외국인 유학생들의 두 외국어학습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Y대학에서 현재 비즈니스를 전공하고 있는 3~4학년 외국인 유학생 184명(남 98명, 여자 86명)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이들 중 82명(중국 44명, 인도네시아 35명, 베트남 3명)은 점수 분석조사에, 데이터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점수 분석에 참여하지 않은 별도의 102명(중국 59명, 인도네시아 43명)은 설문지 조사에 참여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에 거주한 평균기간은 2.5~3.5년이다.

2. 점수 분석조사

이 연구를 위한 참여자들의 영어 능력 및 한국어 능력조사는 연구조사 직전 학기의 '비즈니스영작문' 및 '한국어 어휘와 문법'의 성적 결과로 조사되었다. 먼저 영어성적결과를 4 그룹으로 나누었고(그룹 A: 90-100, 그룹 B: 80-89, 그룹 C: 70-79, 그룹 D: 70 미만), 각 그룹별로 한국어 능력을 평균 내었다. 그 결과, 82명의 참여자들이 A: 26명, B: 18명, C: 28명, D: 10명으로 영어 능력 그룹 인원이 나누어졌다.

3. 설문지조사

본 연구에서는 국어능력과 영어능력의 상관관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하는 점수 분석조사 외에, 영어능력과 깊은 관계가 있는 또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 언어태도 설문지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지 조사는 위의 점수 분석결과를 검증하고 결과의 일치도(consistency)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한 질문씩 읽어주고 참여자가 정확히 답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

다.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연구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알려주었다. 설문지 문항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문지의 질문은 모두 영어와 한국어 두 언어로 제작되었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듯이,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는 그 언어의 능력과 관계가 있다는 가설에 따라, 언어태도 설문지는 특정언어에 대한 호감도 및 중요성과 유용성 인식도, 언어학습에 대한 관심도와 특정언어사용자 및 그 언어사용그룹에 대한 느낌 및 호감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질문으로 제작되었다. 나아가 한국어태도와 영어태도를 비교해보기 위해 영어에 대한 태도도 동시에 질문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지는 기본적으로 최진숙(2005)의 연구에서 사용된 언어태도 설문지를 토대로 하고 있다. 설문지의 질문내용은; 1)성별, 나이,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능력/본인이 생각하는 한국어 능력, 거주기간, 국적; 2)1. 한국어 및 영어에 대해 각각 어떻게 느끼는지(호감도); 2. 두 언어에 대한 유용성(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3. 두 언어를 각각 어느 정도 편리하게 사용하는지(사용편리성); 4. 두 언어를 배우는데 각각 어느 정도 관심 있는지(학습 관심도) 5. 한국어 및 영어사용자들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하는지(사용자호감도); 6. 한국문화 및 영어문화(서양문화)에 대해 각각 얼마나 좋아하는지(문화호감도)로 이루어졌다. 질문에 대한 답은 5 리커트(Likert) 방식으로 대담하도록 제작되었다.

V. 연구결과와 분석

1. 영어 및 한국어과목 점수 분석 결과

연구대상자 82명의 두 과목('비즈니스영작문'과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비교분석해 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성적 평균은 3.86/5.00, 한국어 과목 성적 평균은 3.63/5.00으로 영어 과목 평균이 0.23이 높았다.

표 1. 영어 및 한국어과목 평균(N=82)

과목	평균(5점 만점)
영어과목	3.86
한국어과목	3.63

다음은 영어 과목 성적을 4그룹(그룹 A: 90-100, 그룹 B: 80-89, 그룹 C: 70-79, 그룹 D: 70 미만)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 통계 조사한 한국어 평점이다.

표 2. 영어성적 그룹별 한국어 평균점수(N=82)

그룹	A	B	C	D
평점	3.96	3.56	3.50	3.50

(평점기준: 5 = 가장 높음, 1 = 가장 낮음)

위의 표 2를 보면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A그룹에 있는 참여자들의 한국어 능력 점수 평균이 3.9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80-89점(B) 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3.56으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다음 그룹인 70-79(C)그룹과 70점미만(D)그룹이 동일하게 3.50으로 나타났다. 위의 각 그룹별 점수만 본다면 영어능력이 높은 A, B그룹이 C, D그룹보다 한국어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남으로써, 영어능력이 높은 학생이 한국어 능력도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점수 분석조사의 결과, 영어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어능력도 높다고 한다면, 영어 성적 우수자인 A그룹의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모국어능력은 물론, 영어 능력도 일정수준 도달해 있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모국어능력이 기본적으로 습득되어 있을 경우, 영어의 능력이 우수하면 한국어의 능력도 우수할 수 있다는 위의 선행결과들(Baker, 1993, 최진숙, 2008)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점수조사분석만으로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의 관계를 결론내리기 어렵기 때문에 설문지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2. 설문지조사 분석 결과

1) 주관적인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

설문지 조사에서 가장 먼저 조사된 것이 '자신이 생각하는 영어능력'(이하 'PES')이고 참여자들의 PES의 등급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A(잘함), B(보통), C(못함). 이렇게 세 그룹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나눈 이유는 자신들의 언어능력 평가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 있게 하고, 복잡한 등급시스템은 평가의 신뢰도를 낮추기 때문에(Underhill, 1987) 간단한 등급 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A그룹이 30명, B그룹이 36명, C그룹이 36명으로 나누어졌다.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표 3. PES vs PKS(N=102)

	A	B	C
PES			
PKS	3.14	2.71	3.06

(5: 가장 높음, 1: 가장 낮음)

PES: 자신이 생각하는 영어능력, PKS: 자신이 생각하는 한국어 능력

위의 표 3을 보면, 자신의 영어능력이 높다고 선택한 A그룹은 자신의 한국어 능력이 3.14 정도 된다고 평가했다. 그보다 조금 더 낮은 영어능력 그룹 B는 2.71로 A보다 많이 낮았고, 오히려 자신이 영어능력이 낮다고 인식한 C그룹이 B그룹보다 한국어 능력이 높다고 인식했다(3.06). 영어능력이 높다고 인식한 그룹인 A그룹만 본다면, 이 그룹이 한국어도 잘 한다고 인식하여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이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B, C 그룹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어 능력 인식은 영어능력 인식과 비례하지 않는다. 즉, B그룹은 자신의 영어능력이 높다고 해서 한국어 능력도 높을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고, C 그룹은 본인이 영어능력은 낮아도 한국어 능력은 B그룹보다 더 높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능력과 한국어에 대한 태도

다음 단계로, 본인이 인식한 영어능력 정도에 따라 한국어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다른지 논의해보자.

표 4. PES vs 한국어에 대한 태도(N=102)

항목	FK	UK	CK	IK	FKP	FKC	Mean
그룹A	3.47	3.73	3.67	3.93	4.00	4.00	3.80
그룹B	3.24	3.24	3.44	3.63	3.31	3.75	3.44
그룹C	3.94	3.89	3.94	4.25	3.94	3.63	3.93

(5: '매우' (긍정적) 1: '전혀' (부정적)) 전체 평균=3.72

FK: 한국어에 대한 느낌, UK: 한국어에 대한 미래 유용성, CK: 한국어에 대한 편리성, IK: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도, FKP: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 FKC: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 Mean=평균

위의 표 4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놀라운 것은 자신의 영어능력이 가장 낮다고 평가한 C 그룹에서 FK(3.94), UK(3.89), CK(3.94), IK(4.25)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다. 특히 C그룹의 IK(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도)는 전체 평점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보였다(4.25/5.00). 단 FKC(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 문항만이 영어능력이 높다고 생각한 A그룹에서 높은 평점을 보였고, 낮은 그룹일수록 평점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 평균(Mean)을 보아도, C그룹이 한국어에 대한 태도 평점이 가장 높았고(3.93), B그룹이 가장 낮았다(3.44). 이는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능력이 높은 참여자 경우, 한국어의 필요성 및 유용성은 떨어진다고 판단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사용자와 한국어문화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을 보였다. 반면에 영어능력이 낮다고 스스로 평가한 참여자들은 한국어에 대한 유용성 및 필요성이 높다고 답하였고, 이는 영어능력이 낮아도 한국어는 확실히 배우고 있다는, 그래서 자신이 배우는 한국어가 반드시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보여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보면,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은 같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더 좋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대부분 C그룹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더 좋기 때문이다. 즉,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FKP)과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FKC)만 제외하면 C그룹에서 모든 항목이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흥미롭게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도는 영어능력이 높다고 인식한 팀일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FKC)도 높게 나타났다(4.00-3.75-3.63).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FKP) 또한 그룹별로 일정하게 비례하지는 않지만(4.00-3.31-3.94), PES가 높은 A그룹 평점(4.00)이 PES가 낮은 C그룹 평점(3.94)보다 높은 평점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설문지조사의 결과는 위의 점수 분석조사결과와 일치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본 논문에서의 설문지 조사결과 나타난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로만 언어능력을 측정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언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 외부요인들(예, 학습 환경, 교과과정, 언어선생)과 내부요인(예, 언어 재능)이 있을 수 있다(Gardner, 1985).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학습 상황에서 결과로서 나타난 언어태도는 언어능력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들(예, 최진숙, 2002, 2008; Gardner, 1985; Knuber & Brandsma, 1993; Tremblay, Goldberg. & Gardner, 1995)을 바탕으로 한국어에 대한 태도는 한국어 능력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인식한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은 서로 깊은 관계가 없음을 본 연구는 조심스럽게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태도 설문지 조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PES(‘본인이 생각하는 영어능력’)의 변수(variable)와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수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지 상관관계 분석(co-relational analysis)을 해보았다.

표 5. PES과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수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r)

	FK	UK	CK	IK	FKP	FKC
PES	0.112	0.172	0.104	0.089	0.130	0.412**

*p<0.05, **p<0.01

(통계분석에서 ‘p’(significance probability:유의확률)값이 0.05보다 작으면 일반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받아들인다)

r=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PES: Perceived English skills(본인이 인식하는 영어능력) FK: 한국어에 대한 느낌, UK: 한국에 대한 미래 유용성, CK: 한국어에 대한 사용편리성, IK: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도, FKP: 한국 사람에 대한 느낌, FKC: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

위의 표 5에 따르면, 6가지 언어태도 항목에서 눈에 띄는 상관계수는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FK($r=0.112$, $p=0.067$), UK($r=0.172$, $p=0.123$), CK($r=0.104$, $p=0.295$), IK($r=0.089$, $p=0.074$), FKP($r=0.130$, $p=0.211$), FKC($r=0.412$, $p=0.001$). 이것은 PES(영어능력) 변수가, 한국어에 대한 느낌 및 필요성, 그리고 사용편리성과 학습관심도, 나아가 한국 사람에 대한 태도와 유의확률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의 인식적인 '필요에 의한 태도' (instrumental attitudes)와 감정적인 측면(affective) 모두 영어능력 인식도와는 별개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다만 FKC 즉,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는 분명 영어능력 인식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참여자들이 영어능력이 뛰어나다고 인식하는 연구대상자일수록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어인식과 한국문화 호감도와와의 관계는 여러 가지로 분석해볼 수 있으나, 영어를 잘 하는 학생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에도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즉, 언어는 하나의 문화에 속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에 호기심도 많고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은 다른 언어 및 문화들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항목들에서 낮은 유의확률을 보여 전체적으로 영어능력 인식은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큰 관계가 없음을 상관관계 분석 결과로 나타났다.

3)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능력과 영어에 대한 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표 6을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영어능력과 영어에 대한 태도는 놀랍게도 FEC만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영어능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영어에 대한 태도가 정확히 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PES vs 영어에 대한 태도(N=102)

항목	FE	UE	CE	IE	FEP	FEC	Mean
그룹A	4.33	4.53	4.33	4.47	3.80	3.63	4.18
그룹B	3.35	4.00	3.38	3.81	3.63	3.75	3.65
그룹C	3.00	3.56	2.53	3.29	3.12	3.24	3.12

5: '매우' (긍정적) 1: '전혀' (부정적) 전체평균 3.65

FE: 영어에 대한 느낌, UE: 영어에 대한 미래 유용성(중요성), CE: 영어에 대한 편리성, IE: 영어 학습에 대한 관심도, FEP: 영어권사람에 대한 느낌, FEC: 영어권문화에 대한 호감도, Mean=평균

위의 표 6을 분석해보면, 영어능력이 높다고 인식한 그룹일수록 정확히 영어에 대한 태도도 확연히 좋았고, 영어능력이 낮다고 생각한 학생들일수록 영어에 대한 태도의 평점은 낮았다. 표 6에서는 위의 표 5와는 반대로 FEC, 즉 서양문화에 대한 태도만이 예외가 되고 있다 (3.63-3.75-3.24). 전체평균도 3.65로 위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 평점(3.72)보다 약간 낮게 나

타났다. 많은 선행연구결과들(예, Gardner, 1985; Knuber & Brandsma, 1993)에서 발표했듯이,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가 좋으면 그 언어에 대한 능력도 높다는 가설을 여기서 지지하게 된다. 나아가 특정한 언어에 대한 호감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호감도 높다는 것을 표 6은 증명해보이고 있다(FEP: 3.80-3.63-3.12). 본 연구의 결과는, 언어학습 결과물로의 언어적 성과(linguistic outcome) 외에 비언어적 성과(non-linguistic outcome)가 있는데, 비언어적 성과에서 나타나는 특정언어에 대한 호감적인 태도와 그 특정언어 사용자들에 대한 호감적인 태도는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즉, 특정언어 사용자에 대한 느낌도 학업 성취도와 상호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최진숙, 2005)를 지지해주고 있다.

가장 재미있는 결과는 CE(영어에 대한 사용편리성)다. 즉, 영어능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C그룹이 이 항목에서 2.53이라는 전체 평점들 중에서 가장 낮은 평점을 보였다(4.33-3.38-2.53) 이 결과를 볼 때, 영어능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참여자들은 현재 한국에서 영어를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고, 또한 영어를 사용할 기회도 없다고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한국어보다 영어가 불편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에 대한 결과를 보아도(UE: 4.53-4.00-3.56), 영어에 대해 호감이 있는 없든 글로벌시대인 지금(특히 해외에 유학을 오는 학생들의 인식에서는), 영어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영어능력이 낮다고 생각하는 C그룹에서는 확연히 그 태도평점이 낮았다. 이는 C그룹은 영어에 대해 아예 호감 및 좋은 느낌은 물론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이 그들의 낮은 영어능력과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이 낮다면 영어성취도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Cooper(1984)의 연구에 따르면 배우는 언어가 자신에게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인식하지 못하면 그 언어에 대해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것이라 주장했는데, 이는 언어의 중요성 인식은 그 언어의 능력과 관련이 있음이 본 연구에서 드러났다. 영어로의 많은 노출에도 불구하고 특정언어가 본인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크게 인식하지 않으면, 학업성취도도 낮다고 주장한 이 연구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영어를 잘하는 참여자들은, 한국어도 잘한다고 할 수 없지만, 영어는 잘할 수 있고 호감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영어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은 영어능력에 대한 것만큼은 확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참여자들 대부분은 두 언어,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잘 할 수 있다는 인식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즉, 영어든, 한국어든 한 언어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어능력이 높으면 영어에 대한 태도가 좋고, 영어능력이 낮으면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영어능력 과 한국어 능력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위의 선행연구결과에서 언급되었듯이, 참여자들의 모국어능력 변수와 영어능력 변수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VI. 결론

본 논문의 목적은 현재 한국으로 유학을 와서 대학의 교과과정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영어능력정도가 한국어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 먼저 영어 및 한국어 과목의 점수 분석을 실행하였고, 설문지조사를 통해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영어능력과 실제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여 이 두 변수와 관계를 알아보았다. 우선 두 과목, 즉, 영작문 및 한국어 어휘와 문법 두 과목의 점수를 서로 비교 분석해 본 결과, 영어성적이 우수한 그룹에서 한국어성적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한국어 능력과 관계가 있는 한국어에 대한 태도 설문지를 조사 및 분석해 본 결과, 본인의 영어능력이 우수하다고 생각한 집단에서 한국어에 대한 태도 평점이 상대적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본인이 생각하는 영어능력우수 집단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만 다른 그룹에 비해 평점이 높게 나타났다. 상관관계 계수 또한 영어능력우수 인식과 한국어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하지 않음이 밝혀져 서로 깊은 관련이 없음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영어능력이 우수하면 모국어가 뛰어난 것이고 따라서 한국어에 대한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선행연구들과 일치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어능력이 우수하면 영어에 대한 태도는 물론, 나아가 영어능력도 우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본 논문이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학생들의 영어능력이 높다고 해서 한국어 능력도 높을 가능성은 낮으며, 따라서 영어능력은 국어능력과 깊은 관계가 없음을 본 논문의 결과로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는 위의 선행연구들을 검토해볼 때, 여러 가지를 추정하게 해준다. 우선, 본 연구의 참여자들의 모국어 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제 1외국어인 영어는 물론 제 2외국어인 한국어 능력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의 선행연구에서 모국어 능력이 높으면, 외국어 능력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었으므로, 참여자들의 모국어능력이 높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영어능력과 한국어능력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 본 연구 참여자들의 모국어 능력은 높은 것으로 추정 가능할 것이다. 또한 영어와 한국어로의 노출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모국어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과과정에 한국어 외에 또 다른 외국어인 영어 과목을 투입하는 것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를 추가로 가르치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어 능력 테스트를 거쳐 학생들에게는 한국어 능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더욱더 주력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즉, 모국어 능력이 낮은 유학생들을 위한 교과과정 설계 시,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 또 다른 외국어 과목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모국어능력이 뛰어난 집단에는 영어, 한국어 두 외국어를 동시에 가르치는 것이 무방하다고 본다. 다만, 이 논문의 한계는 비록 두 분석을 동시에 실행함으로써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려 했지만, 양적인 조사만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다음 연구에서 질적 조사인 심층인터뷰를 추가

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영어능력과 한국어 능력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밝혀내려면, 영어 능력우수자들만을 대상으로 관찰 분석을 한다면 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관계를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자는 제안한다.

참고문헌

- 권경수. (2015). 다문화가정 영아의 이중 언어 습득과정 탐색. *어린이 미디어 연구*, 14(3), 107-134.
- 김명숙. (2009). 한국어와 영어 두 언어를 동시에 습득하는 한국 어린이의 한국어 후치부정어 습득에 대한 연구. *인지과학*, 20(4), 383-419.
- 김주영 & 신승훈. (2014). 영어음장 인지 및 발화에 나타난 모국어 전이 양상. *인문연구*, 71, 227-260.
- 박영순. (1997). *이중다중언어교육론*. 한신문화사: 서울
- 배혜경. (2006.8.27). 영어를 잘하려면 한국어 실력부터. Retrieved from <http://yu/cafe.daum.net/vancouverdreams>.
- 안정효. (2007). *뒤집어지는 영어(영화로 배우는 영어)*. 서울: 세경
- 차호순. (1994). 외국어 습득에 있어서의 모국어방해 현상에 관한 연구 - 한국학생들의 영어 습득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Georgetown University.
- 최지현. (2013). *모국어능력과 영어습득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진숙. (2002). 영어능숙도가 낮은 학습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 *외국어연구*, 22, 129-144.
- 최진숙. (2008). 대학생들의 국어능력과 영어능력과의 관계: 영어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언어학* 16(2), 27-46.
- Baker, C. (1993). *Foundation of Bilingual Education and Bilingualism*.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Cooper, R. L. (1984) Language Planning, language spread and language change. In C. Kennedy (ed.), *Language planning and language education* (pp.124-150). London: G. Allen & Unw.
- Choi, J. S. (2002). *Language Attitud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acquarie University. Sydney, Australia.
- Choi, J. S. (2003). English Proficiency: Decline with the perception of ethno-linguistic identity. *English Language Teaching*, 15(2), 1-28.
- Choi, J. S. (2005). Changing attitudes to English and English speakers. *English Language Teaching*, 17(2), 1-24.

- Cummins, J., & Swain, M. (1986). *Bilingualism in education*. New York: Longman.
- Fasold, R. (1984). *The sociolinguistics of Society*. Oxford: Blackwell.
- Fasold, R. (1993). *Sociolinguistics of Language*. Oxford: Blackwell
- Gardner, R. C. (1985). *Social psychology and second language learning*. London: Edward Arnold.
- Knuver, A. W. M., & Brandsma, H. P. (1993). Cognitive and affective outcome in school effectiveness research. *School Effectiveness and School Improvement*, 4, 189-204.
- Tremblay, P. F., Goldberg, M. P., & Gardner, R. C. (1995). Trait and state motivation and the acquisition of Hebrew vocabulary.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7(3), 356-370.
- Underhill, N. (1987). *Testing Spoken Language: A Handbook of Oral Testing Techniqu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최진숙

612-743 부산시 해운대구 142
영산대학교 한국비즈니스학과
전화: (051)540-7092
이메일: jinachoi1@naver.com

Received on April 1, 2016

Revised version received on December 28, 2016

Accepted on December 30, 2016